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8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2일

발 의 자: 소영철,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박영한, 박중화,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상훈, 임규호, 홍국표
의원(12명)

1. 주문

- 만리재길 인근 교통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향후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마포, 용산, 중구 주민이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新安산선 노선내 “(가칭)만리재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함

2. 제안이유

- 新安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과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총 50.7km를 연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선으로 큰 틀에서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의 한축을 완성하는 한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서울 도심까지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철도노선임
- 新安산선 도입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교통여건은 개선될 수 있지만,新安산선이 지나가는 만리재길 주변지역은 경사 변화가 커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보행환경이 취약하고, 인근에 공덕역과 서울역이 위치해 있으나 역간거리가 2km이상으로 멀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 등 여전히 교통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 또한 재개발 등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인구가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공덕동 인근 추가적인 개발로 대규모 인구유입과 함께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되나, '17년 서울역 고가 폐쇄로 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교통환경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아울러, 최근 형성되고 있는 만리재길 및 서울로 사잇길 상권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만리재길 인근 교통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향후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마포, 용산, 중구 주민이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안산선 노선내 “(가칭)만리재역”의 신설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촉구 건의안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과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총 50.7km를 연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선으로 큰 틀에서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의 한 축을 완성하는 한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와 서울 도심까지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철도노선입니다.

현재 신안산선 건설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인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를 활용해 '24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인 2단계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후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도입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교통여건은 개선될 수 있지만,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만리재길 주변지역은 여전히 교통사각지대로 남고 있습니다. 만리재길 주변지역은 경사 변화가 커 교통약자 등 보행자의 보행환경이 취약하고, 인근에 공덕역과 서울역이 위치해 있으나 역간거리가 2km이상으로 멀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만 하는 서울에 몇 안되는 지하철 교통 취약지역입니다.

또한 재개발 등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인구가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공덕동 인근 추가적인 개발로 대규모 인구유입과 함께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되나, '17년 서울역 고가 폐쇄로 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교통환경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형성되고 있는 만리재길 및 서울로 사잇길 상권을 많은 시민들

이 찾아와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신안산선 2단계가 현재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착공 전까지 충분히 역사신설 등의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리재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만리재길 인근 교통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향후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마포, 용산, 중구 주민이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안산선 노선내 “(가칭)만리재역”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